

특집: 도시의 경관조명

서울역 경관조명 디자인

이성재 <(주)일토 건축조명디자인연구소 실장>

1. 목 표

서울역 경관조명의 디자인 접근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물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분석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서울역의 경관조명 특색은 건축의 조형성을 찾아주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며 서울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명환경을 만들어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추억의 서울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된다.

2. 건축분석

주 소 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대 지 면 적: 6,631 m² (지하1층 지상 2층)

건 축 양 식: 르네상스식

건축설계자: 독일 C.K 라란데

문화재지정: 1981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84호

서울역 건축의 특색은 탑모양에 변화를 주어 그 건축의 특징을 살렸다고 본다.

중앙홀과 연결되는 아치형의 탑, 그 양쪽에 보조적으로 서있는 두 개의 CUPOLA, 그리고 그 바깥쪽

으로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아치형 소형탑, 이러한 탑들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CORNICE(띠돌립)의 조화로움은 조명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로 이끌어낸다.

3. 이용자의 활동 형태

기능적으로 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으로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기구선택과 위치선정을 피해야 한다. 또한 바로 앞에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고가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분위기 연출면에서 이 공간을 잠시 머물다가는 장소지만 편안하고 아늑하며 친근감 있는 연출이 필요한 곳이다.

4. 연출구상

서울역은 수도서울의 교통 요지로서 오랜 세월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한다고 하자 그 곳의 도착지가 되는 역사의 느낌은 그 도시 전체의 이미지로 연상되고 오래 기억됨을 알고 있듯이 그 도시를 평가하고 기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서울역사 경관조명을 통하여 개선되는 서울

역의 이미지는 수도서울의 관문임을 대변하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관조명 정책과 더불어 중간에만 관광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특별한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해주므로 인해 서울시 야경의 아름다움과 오래 기억되는 밤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데 경관조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경관조명 계획은 생리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밝기나 조명 효과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쾌적하고 안락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친근감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배경검토와 연관성에서 출발하는 조건 분석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5. 역사성과 조형성

새벽역을 알리는 부실험이 보이며 아침이 밝아오는 곳으로 우리의 시대적 아픔과 에환을 간직해온 역사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국 팔도에서 달려온 기차들의 기적소리, 수많은 인파들의 움직임과 부삼함이 우리 모두가 잊고 살라온 서울역의 모습일지 모른다.

서울역은 1925년 9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제284호로서 문화재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재인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서울역의 경관조명사업을 통하여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로서 활용하고 서울역만이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식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이끌어내어 복잡한 현대 도시속에서 그 자리를 지킬수 있는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위치를 찾아주므로 서울역을 찾는 이용자들이 하여금 포근함과 정겨움이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6. 주변환경과의 조화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도시의 재개발이 가속화 되어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있음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갈등을 상호간에 조화시키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역의 주변은 복잡한 도로망과 좌우측면에 산재해 있는 싸인물과 가판대 모두가 서울역의 모습을 어지럽게 잠식해 버리고 있다.

야간경관의 모습은 주변의 현란한 불빛에 묻혀 서울의 존재조차 인지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 모두 관심과 배려로 순차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장소로 그 문제의 접근을 그리 단순하지만 않다.

주변 건축물에 비하여 외소한 규모를 더욱 크고 장중하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과 대비될 수 있는 빛의 단순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주변 광장과 주차장이 연계되는 단지 성격의 부여로 역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배려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7. 연출방법

- 1) 건축의 좌우 지붕에 위치한 탑을 턱 부분에 위치한 조명기구에 의해 UP-LIGHTING 한다.
- 2) 중앙들의 부채꼴 창은 내부에 평원을 위치시켜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표현한다.
- 3) 중앙 좌우에 있는 작은 탑은 하단부에서 UP-LIGHTING 하므로 연대비로 조형성을 부각시켜며 첨탑부분은 청색필터에 의해 청동색의 푸르름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한다.
- 4) 중앙동 사면의 FACAD는 더욱 돋보이게 강하게 투사시켜 첨탑의 낮은 반사면과 대비시킨다.
- 5) 창문의 처마위에 UP-LIGHTING으로 건축상단의 띠 돌림을 강조시킨다.
- 6) 중앙들 청동부분은 옥상면 4면에서 청색필터에

의해 강하게 투사시켜 푸른색의 돋보임을 연출한다.

7) 입구부분의 원형 아치 처마는 교차 투사방법으로 빛의 흐름을 매끄럽게 배분

8) 지면부분은 매입설치가 불가능한 지형으로 대리석 BOX에 기구를 내장시켜 상측부분보다 휘도가 낮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9) 입구에서 보여지는 내부조명의 흘러나오는 빛과 조화롭게 휘도를 대비한다.

10) VIP실 입구 나치 처마는 지중형 조명기구를 대리석 BOX에 내장시켜 UP-LIGHTING하므로 곡선의 처마선과 기둥의 형태, 처마선의 떠 돌림을 부각시킨다.

11) 케노피의 PENDANT는 르네상스식 건축물에 조화로운 디자인

12) 케노피 조명은 외형디자인은 원형대로 유지시키며 높은 조도를 유지한다.

13) 건축과 조화로운 가로등 디자인

◇ 著 者 紹 介 ◇



이 성 재(李成在)

1985년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1995년 고려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졸업 (석사) 현재 (주)알토 건축조명 디자인 연구소 실장. 당 학회 편수위원.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인하전문대 실내건축과 강사.